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비슷한 감기로 결석했어요. 출석 인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2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밤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기침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감기인 것 같았지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라 등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는 데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출석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문영주(46·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학년 2학기 이후)'에 따르면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된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나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못한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등으로 의심 증상 사실을 확인해야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출결 증빙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RE TIP**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만큼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 수시 이월 인원, 정시 지원 시 어떻게 참고해야 할까요?

고3 수험생 가족입니다. 수시 모집 지원 결과가 좋지 않아 정시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수시 이월 인원은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_ 최미용(50·서울 마포구 대흥동)

### 수시 이월 인원은 수시 등록 마감 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대입 모집의 변화가 많아 예년과 다른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시 이월 인원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 모집으로 이월해 선발하는 인원을 뜻합니다. 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복수의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에 등록했을 때 대학에서 공지한 수시 모집 정원이 미달됩니다. 수시 등록 최종 마감일인 12월 29일 저녁 이후부터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수시 이월 인원은 정시 경쟁률과 직결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므로 정시 지원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는 약대 학부 선발,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따른 교차 지원 확대 등으로 수시 이월 양상이 예년과 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북 전주우석고 박창섭 교사는 “자연 계열은 수시 이월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대 신설로 생명이나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 학과에서 수시 이월이 많을 것으로 보여 도전해볼 만하다. 인문 계열 중 경제·경영학과 등은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 이월이 늘어날 수 있다. 정시 지원에서 자연 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수학과 사회탐구 표준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수시 이월 인원 활용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합니다. <sup>①</sup>

#### MORE TIP

올해는 <생명과학 II> 문제 오류로 12월 29일에 수시 총원이 마무리되고,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5일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년과 달리 수시 이월 인원 발표와 정시 원서 접수 사이의 간격이 짧기 때문에 지원 양상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재 이지연 리포터 judylee@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